

매운맛 5분이면 감별...측정 장비 개발

정읍 대풍년영농조합법인 3년 연구...특허 등록 완료 농가 보급 기술 상용화 나서



대풍년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이 매운맛 측정 장비를 테스트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북면에 소재한 대풍년영농조합법인이 고춧가루의 매운맛 정도를 감별해내는 '매운맛 측정 장비'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고춧가루 제조업체인 대풍년영농조합법인은 최근 전북 최초로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판별해 내는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매운맛 측정 장비는 매운맛 정도가 각기 다른 고춧가루에 '매운 등급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대풍년영농조합법인이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해 낸 측정기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순한 맛부터 아주 매운 맛까지 미리 설정한 기준에 의해 등급을 나눌 수 있다.

그동안 매운맛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검출기를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분석

비용이 발생해 농가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매운맛 측정기의 측정 시간은 단 5분이며, 오차는 ±10% 이하로 정밀하다.

특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측정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시장의 유통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풍년영농조합법인은 국내·외 특허 등록을 완

료했고, 농가와 가공공장 등에 보급하기 위해 본격적인 기술 상용화에 들어갔다.

대풍년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정읍시의 기술자문과 도움으로 큰 시행착오 없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신제품 상용화를 위한 끊임 없는 노력으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익산 평화육교가 5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22일 새롭게 개통했다. 개통식 장면. <익산시 제공>

익산 평화육교 5년 공사 끝 개통

530억원 들여 재가설 완공

익산 평화육교가 새단장을 마치고 22일 개통했다. 익산시는 평화육교 개통으로 시민 통행 안전과 도심 교통 여건 개선, 철도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KTX 호남고속철도 선로 조정을 위해 지난 2016년 국가철도공단과 익산시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평화육교 재가설을 건의했으며 2015년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이 최종 승인된 바 있다.

평화육교는 국비 307억원과 익산시 분담금 223억5100만원 등 총사업비 530억5100만원이 투입

됐다.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대체우회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 기간이 1년가량 지연됐다.

시는 평화육교 개통에 이어 목천동 목상교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화육교는 지난 1975년도에 건설됐으며 2010년 8월 정밀안전진단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간 통행 제한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업에 협조하여 주신 목천동 지역주민들과 토주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익산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상반기 시민제안 공모 천변길 수국식재 등 10건 선정

남원시는 2021년 상반기 제안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0건의 안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소통과 열린 행정으로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공모분야로는 문화관광, 사회복지, 인구정책, 청년정책, 생활편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8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해당 부서검토를 거쳐 각 분야의 담당자로 구성된 제안심사실위원회에 상정돼 1차 심사를 거쳤으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제안 10건을 제안심사위원회(2차 심사)에 상정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무원과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정된 제안에 대해 5가지의 심사항목을 평가해 점수별로 제안의 등급을 결정했다.

심사결과 천변길 수국식재, 수송체·금동제 수변경관조성 등 동상 5건, 장려상 5건이며, 등급에 따라 각각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공모를 통해 실현 가능한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시행해 남원시 시정발전에 힘쓰겠다"며 "하반기 제안공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소방서 다중업소 화재보험 의무 가입 독려

고창소방서는 오는 7월6일 이후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만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했지만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 미상의 화재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피해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6일 전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약관을 추가(갱신)해야 한다.

무과실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은 신규업소는 영업 전에 가입하고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기존보험 만기일이 시행일 전일 경우 만기일의 익일에 가입(또는 갱신)해야 한다. 만기일이 시행일 후일 경우 시행일 전에 가입(또는 약관추가)해야 한다.

또 소방서는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이 재개 될 때까지 가입이 유예되고 영업을 개시하는 즉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단속

순창군이 23일부터 8월3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3개의 감시반을 편성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수다량 배출사업장과 자체 처리해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 운영 등 고위·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우리나라 꽃...' 전시

내달 25일까지 안영숙 작품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다음달 25일까지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에서 안영숙 작가의 '우리나라 꽃이 피었습니다'를 전시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민족의 정체성을 주제로 전통 자수공예와 규방공예 작품 등을 선보인다. 전시 작품은 꽃과 새, 동물 등을 전통자수로 표현한 병풍, 복주머니, 흥배, 들피, 안경집, 혼서지보 등이다. 안 작가는 우리나라 전통공예 작가로 규방 공예와 전통자수를 연구 작

업하며 활동 중으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및 2020년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다.

한편 박물관은 매년 전시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작가에게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에 전시 기회와 함께 전시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하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군산항 7부두 임항창고 신축공사 발주

185억원 투입 2동 내년까지 완공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의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185억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임항창고 신축공사'를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7부두는 군산항 내 접안능력이 제일 큰 부두로 사료원료인 곡물과 발전용 우드펠릿을 선적한 대형 선박이 이용하고 있으나, 배후에 보관 창고가 부족함에 따라 항후 유통품질 향상과 군산항 경쟁

력 제고를 위해 창고 2동을 신축할 계획이다.

임항창고는 총 연면적 1만3982.5㎡ 규모로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11월 말께 시공사 선정과 12월 착공을 거쳐 내년 말 완료할 방침이다.

홍성준 군산해수청장은 "군산항 7부두 내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보관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운영사 등 항만 관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와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